

최근 잇따른 버스기사 폭행사건, 현금 수송차량 도난사고 등으로 차량의 내부 상황을 녹화·감시할 수 있는 'MDR(Mobile Digital Video Recorder)'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이미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 특수목적용을 위한 중요 차량이나 기차, 선박 등에 설치가 보편화되어 중앙상황실에서 위험을 미리 탐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주차단속 및 차량견인에 MDR이 사용 중이며 향후 경찰차, 스쿨버스, 철도, 선박 등으로 사용의 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차량 속 블랙박스, MDR 세계시장을 이끄는 국산 MDR장치

아이디스, 세계 MDR시장을 제패할 'MDR-400'



국내 DVR 매출 1위인 DVR전문업체 아이디스(대표 김영달)는 최근 판매호조를 보이고 있는 차량용 DVR의 고급형인 'MDR-400'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 모델인 MDR4를 업그레이드한 MDR-400은 120i/s의 녹화 지원으로 최고의 성능을 구현했으며, 4채널의 음성 지원도 가능하다. MDR-400은 차량 내부의 충격과 진동, 외부의 온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영상뿐 아니라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녹화, 검색, 원격 관리의 일반적인 DVR기능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만족시키는 차세대 차량용 DVR이다. 또한 DCP(Driver Control Panel)를 연결해 차량 내부에서도 손쉽게 제어와 설정이 가능하며 사고시에는 긴급 녹화를 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영상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다 많은 영상을 저장할 수 있고, 영상과 오디오가 저장된 Removable 하드디스크는 일반 PC에 장착하여 어디에서나 검색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 MDR시장을 노린다 ● 아이디스 김영달 대표 | MDR은 작은 크기로 열악한 환경을 견디면서 DVR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DVR 이상의 정밀성과 기술이 요구된다. DVR 종주국인 한국 DVR업체들의 MDR시장 세계제패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빅셀, 실차 장착으로 입증된 'Penta II Mobile'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을 운행하는 400여 대의 버스에 차량용 DVR을 설치한 빅셀(대표 은연숙)도 버스운송사 업자들을 대상으로 4채널 차량용 DVR제품 판매를 늘려가고 있다. 빅셀의 차량용 DVR 'Penta II Mobile'은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판매된 Mobile제품 중 하나로 꾸준한 개발과 수백 번의 검사로 현재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버스에 장착해 진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제품의 기초단계에서부터 완성까지 아웃소싱 한번 없이 독자기술로 개발하였고, 직접 실차에 장착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회사측은 전한다.

또한, 'MobilCon'이라는 휴대용 Controller를 개발하여 차량 내에서 사고시 녹화된 장면을 바로 재생할 수 있도록 Video Output이 있으며, LCD Monitor를 제외한 Control Panel도 판매하고 있다. 빅셀은 앞으로 내수시장은 물론 영국, 미국 등 해외 바이어들과의 협상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별화된 DVR을 만들겠다 ● 빅셀 은연숙 대표 | 그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나라마다 특색 있는 차량용 DVR의 개발로 세계시장 개척에 힘쓰겠다. 또 버스, 현금수송차량, 택시 등 폭발적인 국내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연구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